탐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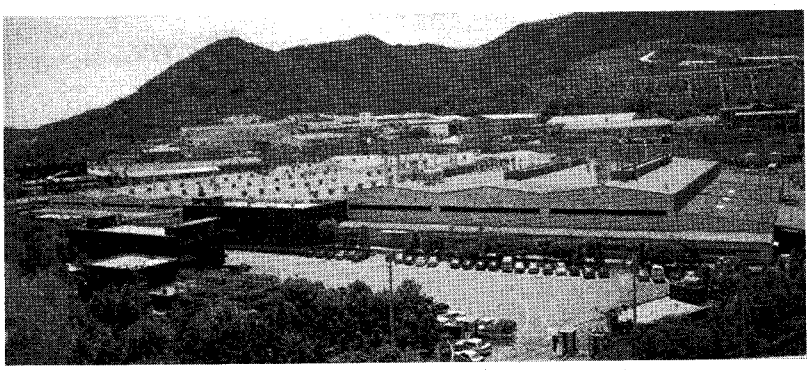
한일제관(주)

품질·가격경쟁력 바탕 최고의 제관사로 성장

작은 것 소중히 여기는 질적 경영이념으로 세계 일류 도약

韓一製罐株式會社
HANIL CAN COMPANY, LTD.

1939. 1 조선제관주식회사로 창립
1968. 5 한일제관주식회사로 재발족
1977.10 서울제관주식회사 합병
1978. 6 미국 '아메리칸 캔 컴퍼니'와 합작투자
1980. 5 양산공장 준공, 본사 및 부산공장 이전
1985. 6 수원공장 준공, 서울공장 이전
1989. 8 D&I 2피스공장 준공
1991. 2 스틸 원터치뚜껑 생산 개시
1992. 2 D.R.D2피스 캔 생산
1992. 5 D&I캔 라인 증설



▲ 만 7천여평 규모인 양산 본사 및 공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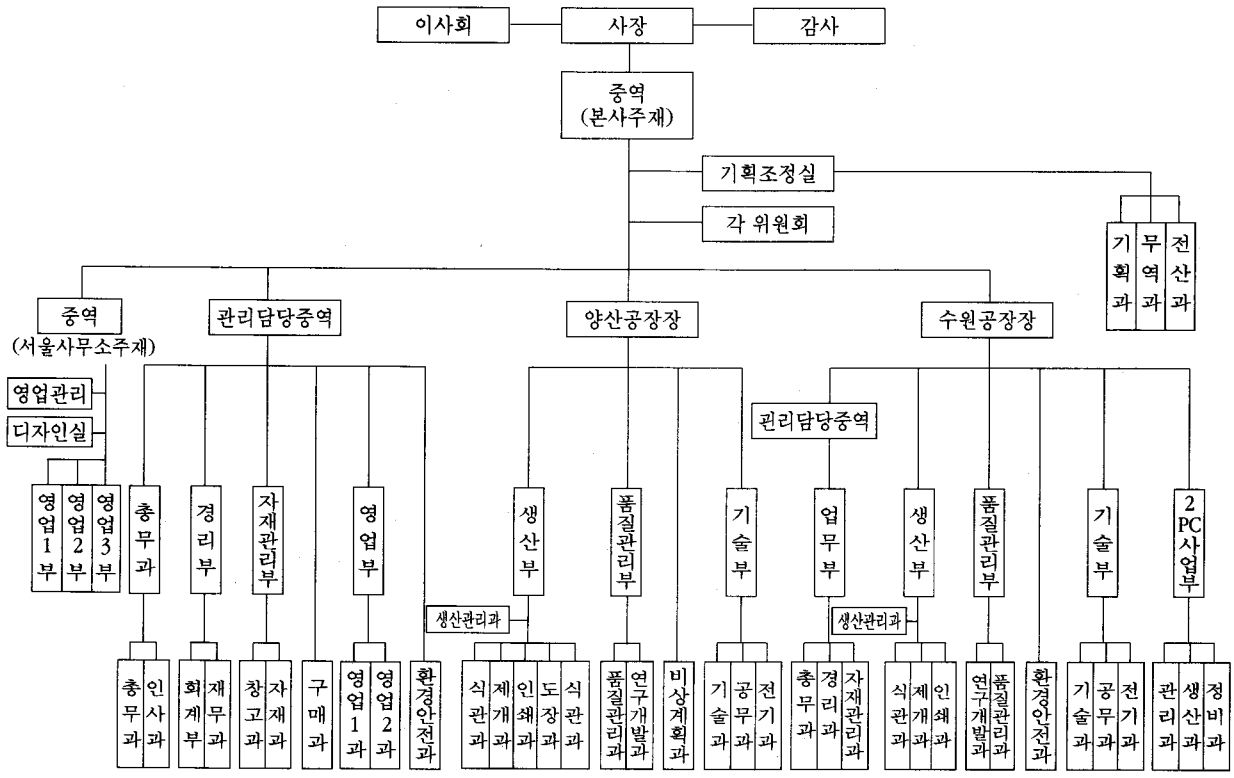
왕복 14시간여의 기차와 버스 여행으로 다녀온 국내 최대의 제관업체인 한일제관(주) 양산 공장은 양산공단 1만 7천여평의 대지 위에 자리잡은 일률적인 빨간 지붕이 인상적인 곳이었다.

1939년 조선제관(주)로 창립한 한일제관(주)는 한일제관(주)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제관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만큼 초창기부터 국내 제관업을 선도해 온 업체이다.

국민들이 낮았던 60년대 말 국가에서는 농산물의 양송이와 수산물의 굴을 주종으로 100% 통조림화하여 수출전략산업으로 제관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또한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의 식량보급을 위한 군수전략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관산업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 경영난을 거듭하던 한일제관(주)는 1969년을 기점으로 하여 설비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국내 최대의 제관업체로 성장하였다.

78년부터 세계최대 제관업체의 하나인 'AMERICAN NATIONAL CAN COMPANY'와 합작하여 세계적인 제관업체로의 발돋움을 시작한 한일제관(주)는 금속포장용기에 다양한 내용물을 담고 인체와 관련된 민감한 산업인 제관업에 있어 존재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속공학·식품공학·화학공학 등 여러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투자와 계속적인 신기술과 설비에 대한 재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투자의 결과로 맥주 및 탄산음료 캔을 2피스 캔으로 교체하였고 수입에 의존하던 환경보존형 부착형 뚜껑과 전면개관 이지오픈 엔드(E.O.E)의 국내 생산 및 신설비

〔표 1〕 한일제관(주) 전체 조직기구표



투자를 진행해 국내 수요뿐 아니라 8년전부터는 품질관리가 까다롭고 기술이 우수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의 김성우 이사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세계의 최신정보를 적시에 입수하고 이 정보를 채택하여 생산·판매에 적용하는 것이 경영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한일제관(주)는 일찌기 세계적인 제관사인 미국의 'AMERICAN NATIONAL CAN COMPANY'와의 합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천 기술의 도입과 최신기술 정보 입수가 가능해져 그간 설비의 자동화·고속화 ·성력화를 기하고 품질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품질과 가격, 그리고 아프터 서비스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앞서있는 회사로의 목표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그간의 성장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제관사들간의 과당경쟁으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음료사의 불황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몇해 전 3피스 캔에서 2피스 캔으로의 급격한 전황과 물량확보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제관사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 공급량이 과다해진 것, 그리고 채산성의 악화에 주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비해 한일제관(주)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대표이사인 정호발 사장이 배당을 억제하고 계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내무구조를 개선해 온 현실적인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부채율 400%에 비해 부채율이 50~60%정도밖에 되지 않는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참치캔 뚜껑으로 주로 사용되는 전면개관 이지오픈엔드 제품은 최근 그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김 이사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E.O.E 제품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품질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안정성의 문제는 제품생산 초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소함에서 비롯된 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개관방법의 인쇄를 선명하게 보완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입니다. 이 방법만 널리 인식되면 도구를 이용해 돌려 따

▲ 안전성이 우수한 전면개관 E.O.E 생산라인

는 번거로움이 없이 캔 제품을 열 수 있는 편리성을 소비자들에게 확대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이 제품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제관업계에는 백관에서의 납성분 검출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92년 이후 여러차례 제기된 문제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납땜식에서 전기저항열에 의한 용접기술로 제조방법이 바뀌면서 공정상에서는 납성분의 투입요소가 없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석도금과정의 잔류물에서 납 성분이 용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재사의 자체 실험에 따르면 잔류물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양은 매우 소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납성분을 검출한 습식검사법에 쓰이는 용매 자체에 납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용매에서 검출되는 납성분을 제외한다면 그 양은 허용치 이내의 것이 되고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 꾸준히 연구중이라고 한다. 또한 김 이사는 "백관의 주석성분이 과즙음료와 작용하여 비타민 C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여 주석이 일정량 용출되어 맛과 영양이 보강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도 있는 반면 맛과 영양에 비해 미심쩍은 안정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도 이 두가지 요구를 수렴한 두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일단 음료라는 상품은 소비자들의 건강문제와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소비자들의 기호를 찾아갈 생각입니다"라고 업계의 노력을 덧붙였다.

현재 제관설비를 계속 갱신해가고 있는 한일제관(주)는 인건비와 소재가의 상승에 의해 82년보다 공관의 가격이 낮은 95년의 업계의 현실을 원가절감은 물론 최신생산라인 설치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로 그 해결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현재 최신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건설중인 대전공장과 중부이남의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본사인 양산공장을 비롯해 중부이북 지역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공장과 전체 생산량 중 80% 이상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는 한일제관(주)는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품질과 원가의 가격경쟁력은 물론 소비자의 관심과 환경문제를 함축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생산할 것임을 자신하고 있다.

▲ 양산공장의 D.R.D. 2피스 캔 생산라인

이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경영진과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능동적인 자세가 큰 역할을 했는데 한일제관(주)의 임직원들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원칙으로 삼고 국가와 회사의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기술개발과 우수한 제품의 생산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러한 능동성은 회사에 대한 사랑을 통해 더욱 고취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사원들 스스로가 볼링, 낚시, 축구 등 각종 소모임을 통해 애사심을 키워가고 있으며 회사 측에선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해 진정한 한일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노사간의 협력으로 세계일류 한일제관(주)를 이루어가고 있다.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작은 것을 소중히 할 줄 아는 질적 경영의 이념으로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는 세계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에 항상 그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김 이사의 말처럼 겸손하면서도 그 분야의 최고임에 대한 자부심으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일제관(주)를 탐방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최고의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ko

윤지은 기자

인터뷰 —한일제관(주) 대표이사 정호발

세계 제관업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주도적 역할

영세업종에서 세계적인 업체로 발돋움한 소신있는 경영인

19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는 전후 10여년간의 어려운 상황을 딛고 여러 분야의 산업이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하던 초기 단계였다.

제관업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1939년 일본인이 설치한 구형 납땜 1개라인 뿐이었다. 장차 통조림 산업이 국민경제 발전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발전전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1969년에 한일제관을 인수한 정호발 대표이사는 당시 극히 영세하여 부도를 거듭하는 부실한 회사였던 한일제관(주)를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제관사로 이끌어 온 소신있는 기업인이다.

▲ 한일제관(주)의 정호발 대표이사

1954년 동아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한 정 대표는 그동안 한일제관(주)의 대표이사로서 부산경영자협회 부회장,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 오기도 했는데 "가장 낙후됐던 제관회사를 인수하여 세계굴지의 제관사와 합작 파트너가 되어 단기간에 제관설비의 현대화를 이룩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 및 원가의 국가경쟁력을 가진 제관회사로 발전시켜 주 수요고객인 국내 식·음료산업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을 큰 보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보람이 있기까지 미국 아메리칸 캔 컴퍼니와의 합작을 앞두고 부산영도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일이나 3피스 캔에서 2피스 캔으로 전환키 위해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였으나 물량확보가 되지않아 가동을 하지 못하였던 일 등 많은 역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계절상품인 음료용기의 품종이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급변하여 성수기에는 원자재 파동과 거래선에 공급지장을 주고 비수기에는 공장가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라며 우리나라 제관사의 역사를 대변하는 한일제관(주)의 지금이 있기까지를 회상했다.

현재 국내 제관사들은 기술수준과 품질, 가격을 종합한 제품경쟁력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진입해있다고 할 수 있으나 3피스 캔에서 2피스 캔으로의 전환투자와 관형의 다양화, 환경보존형 제품화 과정에서 경쟁적인 설비투자로 공급과잉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인건비를 비롯하여 최근 알루미늄과 석판 등 원자재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공관 가격은 82년에 비해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채산성이 극히 악화되었는데 정 대표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관업계와 협력업체인 소재 공급처 및 수요 고객업체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로 원가절감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개발과 지원, 국내 시장에서의 출혈 경쟁의 지양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맡은 바 분야에서 최상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기본 경영이념입니다. 국내 최대의 제관업체인 우리 한일제관(주)가 업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본 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작선과 더불어 세계최신의 기술을 도입함은 물론 설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요고객에 보답하고 종업원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라며 말을 맺는 정 대표의 다짐에서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의 화합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기업인의 정신을 읽을 수 있었다. Ko

윤지은 기자